

면화라고 하니깐 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코튼볼이 성숙하면 각 실의 경계가 벌어져 속에서 하얀 면화가 벌어져 나온다. 면화라고 하니깐 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자모이기 때문에 활짝 핀 상태가 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면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코튼볼이 벌어져서 나온 면화는 마르게 되면, 수분이 없어져 측면은 납작하게 비틀려 머리에 묶는 리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단면은 관을 눌러 찌부러뜨린 듯한 중공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가 머무르기 때문에 면은 가볍고 따뜻한 것이다. 이렇게 면섬유는 편평하고 비틀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을 만들기 쉽다. 이러한 비틀림을 천연꼬임이라고 하고, 비틀림의 정도가 면사의 탄력성, 강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면화는 현재 세계의 약 90개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코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코튼은 아니다. 생산지, 품종, 재배방법 등에 따라서 개성은 다양하다. 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고급의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집트 면이다.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면화는 모두 초장섬유면(섬유장 6 cm이상) 또는 장섬유면(섬유장 3.5 ~ 6 cm)이라고 하는 긴 것으로서 특히 섬유의 강도는 세계 최고이다. 역시 실키하고 낭창낭창하다. 서인도제도에서 수확하는 해도면(sea island cotton)도 견과 같은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는데, 이집트면은 브로드 클로스 등의 고급 박지직물 등에 최적이다.